

미국 신보수주의 외교정책의 사상적 기원과 레오 스트라우스

신철희*

I. 서론

지난 4월 25일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의 대통령 도서관 헌정식이 그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텍사스주의 서던메소디스트 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 기념식에는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 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는 퇴임할 즈음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이었고, 후임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억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는데, 그의 대통령 도서관 개관 소식은 미국인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난 일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다.

부시 전 대통령의 이름은 예외 없이 9/11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과 이후 미국이 수행한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라크 전쟁과 연결된다.¹⁾ 미국은 9/11 테러이후 압도적인 힘과 미국적 가치에 대한 우월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무력사용과 일방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펼쳤다.²⁾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라크전쟁, 북한 및 이란 등 소위 불량국가들에 대한 선제공격 위협, 테러와의 전쟁 선포, 교토의정서 탈퇴 등은 당시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조를 잘 대변하는 구체적인 사

* 서울대

1) 그의 대통령 도서관도 주로 이 전쟁들과 관련된 자료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2) 김영호, "미국 신보수주의 외교전략의 실제," 남궁곤 편, 『네오콘 프로젝트』(서울: 사회평론, 2005), 319.

례들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대외정책에 변화가 일어난 데에는 특정한 이념과 정책 수단을 공유하는 한 세력의 영향력 확대와 관련이 깊었다. 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ves) 또는 네오콘이라 불리는 이 세력은 미 행정부, 학계, 언론계, 연구소 등에 고루 포진해 있으면서 미국의 국내외 주요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국제적 역할과 관련하여 고립주의와 국제주의, 힘의 사용 정도에 따라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탈냉전 국제질서를 보는 시각에 따라 세력균형 현실주의자와 단극주의자, 미국 외교정책의 접근 방식에 따라 다지주의와 일방주의, 미국적 질서의 전파와 관련하여 현실주의와 월슨주의 등 다양한 스펙트럼 사이의 대립의 중첩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띠어왔다.³⁾ 그런데 단순화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9/11 사건 이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2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은 단극주의, 민주 국제주의, 공세적 현실주의, 일방주의, 미국 예외주의, 시오니즘 등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였다.⁴⁾ 이러한 신보수주의자들의 득세에는 전통 보수주의자로 분류되는 딕 체니 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시 대통령의 신임이 큰 힘이 되었다.

신보수주의자들의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이들의 사상과 구체적 정책내용에 대한 국내외 학계와 언론의 관심이 높았으며 이들에 대한 연구와 언론 보도가 활발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점은 이 연구나 기사들의 상당수가 신보수주의자들이 받은 사상적 영향과 관련하여 정치 철학자였던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 1899-1973)를 지목했다는 점이다. 스트라우스와 신보수주의자들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교육배경과 인적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신보수주의자들의 대부인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은 직접 스트라우스와 교류가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자서전에서 스트라우스로부터 받은 지적 영향에 대해서 언급했고,⁵⁾ 2세대 신보수주의자들 중의 상당수가 스트라우스나 스

3) 백창재, “미국 신보수주의의 외교와 한반도,” 남궁곤 편, 같은 책, 372-4.

4) 같은 글, 374.

5) Irving Kristol, *Neoconservatism: The Autobiography of an Idea* (New York: The Free Press, 1995), 6-9.

트라우스의 제자들인 소위 스트라우스주의자들(Straussians)에게서 교육을 받았다.⁶⁾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스트라우스와 신보수주의자들의 사상적 연관성에 대한 주장이 전혀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Marxists)의 주장이 마르크스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신보수주의자들이 스트라우스의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 중의 상당수가 스트라우스의 의도와는 다른 자의적인 해석이거나 스트라우스의 권위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 하려는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오히려 신보수주의자들의 대외정책이 스트라우스에게서 직접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기독교 근본주의, 서구 중심적 인종주의, 패권주의가 혼합되어서 미국의 대외정책 실행 과정 중에 일관되게 표출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내의 학계의 스트라우스와 신보수주의자들에 대한 연구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스트라우스가 도덕적 우월주의자이자 엘리트주의자이며 전체주의와 일방주의를 부추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상가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⁷⁾ 대다수의 기존 연구는 스트라우스라는 사상가 자체에 대한 탐구는 소홀히 하고 신보수주의의 특성을 중심에 두고 그와 비슷한 스트라우스의 주장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⁸⁾ 이는 연구자들 뿐 아니라 스트라우스에 대한 신보수주의자 자신들의 태도이기도 하다. 본 에세이는 먼저 스트라우스 정치사상의 특징과 이에 대한 오해를 밝히고 신보수주의 외교정책의

6) 신보수주의 외교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도널드 케이건(Donal Kagan)은 코넬 대학 교수시절에 동료교수이자 핵심 스트라우스주의자인 알란 블룸(Allan Bloom)으로부터 스트라우스의 사상을 소개 받았고, 폴 울포위츠(Paul Wolfowitz)와 에이브럼 셸스키(Abram Shulsky)는 시카고 대학시절 블룸의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했다. 셸스키와 함께 이라크전 정보 조작에 관련된 것으로 지목받는 게리 슈미트(Gary Schmitt)와 대통령직속 생명윤리위원장인 레온 카스(Leon Kass)도 시카고 대학에서 스트라우스를 배웠다. 체니 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루이스 리비(Lewis Libby)는 예일 대학에서 울포위츠 교수로부터 스트라우스를 배웠고, 신보수주의의 대부 어빙 크리스톨의 아들 윌리엄 크리스톨과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의 저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하버드 대학에서 스트라우스주의자인 하비 맨스필드(Harvey Mansfield)로부터 배웠다. 리처드 펄(Richard Perle)은 울포위츠와의 교제를 통해 스트라우스를 알게 되었다.

7) 대표적인 연구로는 Shadia Drury(1988, 1997), 안병진(2005), 박성래(2005) 등이 있다.

8) Steven Lenzner and William Kristol, "What was Leo Strauss up to?" *The Public Interest* (2003: Fall),

발전과정과 실제적인 사상적 기원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

1. 정치철학자로서 스트라우스

스트라우스의 많은 저서와 논문으로부터 그가 진정으로 의도했던 바를 밝혀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상가에게 마찬가지로, 스트라우스의 경우에는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자신의 말처럼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만 본 뜻을 알 수 있도록 글을 쓰는 방식인, 소위 ‘비의적 글쓰기’(esoteric writing)의 전통을 잇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접근하기 힘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스트라우스의 마키아벨리에 대한 연구를 예로 들면, 스트라우스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The Prince*)에서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에 기초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⁹⁾ 실제로 스트라우스가 얼마나 글을 비의적으로(esoterically) 쓰려고 했는지도 의문이고, 어떤 사상가의 글을 이해할 때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대하는 것은 오히려 이해를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보통 사람의 상식을 가지고 스트라우스의 표현대로, “비로 살살이 쓸 듯이” 텍스트를 꼼꼼히 읽는 것이 필요하다.

유대계 독일인 학자로서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 미국에 정착한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적 과제는 고대정치철학(classical political philosophy)의 복원이었다. 스트라우스가 고대정치철학자들의 사상에 천착하게 된 것은 서구(the West)와 근대성(modernity)의 위기에 대한 그의 관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스트라우스는 현대 서구의 위기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그 목적 -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 구성된 풍요롭고 보편적인 사회의 건설 - 과 자신들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데 있다고 보았다.¹⁰⁾ 이러한 목적 상실은 20세기에 대한 경험,

9) 스트라우스는 자신의 『마키아벨리의 사상』(*Thoughts on Machiavelli*) 군주에게 필요할 때는 비도덕적인 행위도 서슴지 말라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키아벨리는 사악한 사람이며 애국자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보편적인 폭정(tyranny)을 추구하는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 끊이지 않는 악과 가난의 존재, 통제되지 않는 과학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도 기인하지만, 스트라우스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이론들의 도전이다.¹¹⁾

스트라우스는 인간이 좋은 삶(the good life)과 좋은 사회(the good society)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명시적인 목표로 삼았을 때 정치철학이 생겨난다고 보았다.¹²⁾ 그런데 고대정치철학은 이러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가치 지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반해, 근대정치철학(modern political philosophy)은 이데올로기로 대체되어서 더 이상 무엇이 옳은 정치체제인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¹³⁾ 사실(facts)과 가치(values)의 분리가 일어난 것이다. 스트라우스는 이러한 이론적 경향을 역사주의(historicism)라고 불렀는데, 그는 역사주의가 사실과 가치를 엄격히 구분하여 가치를 비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보편적인 진리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¹⁴⁾ 그리고 역사주의에서 비롯된 가치 상대주의가 근대성의 위기를 불러온 주범이라고 생각했다.

근대정치철학이 가치 판단을 보류하고 정치이론(political theory)화 한 것에서 서구의 위기의 원인을 찾은 스트라우스는 이러한 가치 상대주의가 현실에 나타난 것이 자유주의의 만연이라고 보았다. 스트라우스는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을 휩쓸었던 자유주의의 물결이 나치의 등장을 가져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국에 이주한 이후로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또 다른 독재, 즉 공산주의에 빠질 위험에 대해 경계했다. 그는 공산주의의 승리가 서구의 자연과학의 승리가기는 하지만 동시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동양 전제주의(Eastern despotism)에 대한 패배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다.¹⁵⁾

10) Leo Strauss, *The City and Ma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3, 5-6.

11) Thomas Pangle and Nathan Tarcov, "Epilogue," Leo Strauss and Joseph Cropsey eds.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3r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908.

12) Leo Strauss, *What Is Political Philosoph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10.

13) Strauss, *The City and Man*, 2; Strauss, *What Is Political Philosophy?* 79.

14) *Ibid.*, 908.

15) Strauss, *The City and Man*, 3.

스트라우스에게는 공산주의의 명백한 위협성과 사악함을 제대로 파악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는 현대정치철학보다는 플라톤과 그 밖의 고대 사상가들이 오히려 현대의 문제의 본질을 더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¹⁶⁾ 그래서 스트라우스는 고대정치철학의 복원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것이다.

2. 스트라우스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전체주의자)인가?

스트라우스가 받는 비난 중의 하나는 그가 자유주의적인 가치와 제도를 중요하고 개인의 자유나 취향보다는 시민의 애국심과 국가의 단합을 강조하는 전체주의의 옹호자라는 것이다.¹⁷⁾ 이에 대한 비난의 근거로 스트라우스가 칼 슈미트로부터 받은 지적 영향과 미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부정적인 견해를 예로 든다.

먼저 스트라우스와 칼 슈미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와 스트라우스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스트라우스는 바이마르 공화국에 나치가 등장하기 전부터 슈미트와 교우관계에 있었고 슈미트가 그의 저작인 『정치적인 것의 개념』(*The Concept of the Political*)을 출판할 때 서문을 써줘서 슈미트로부터 자신보다 자신의 철학을 더 잘 이해한다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 또한 슈미트는 스트라우스가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후원자로서의 역할도 했다.

스트라우스와 슈미트는 당시의 정치 현실에 대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당시의 바이마르 공화국에 만연해 있었던 자유주의가 도덕과 가치의 상대주의를 가져오며, 이것이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본질인 친구(friend)와 적(foe)의 개념을 흐리게 하여 인간을 탈정치화 시킨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스트라우스와 슈미트가 일치하는 점은 여기까지이다. 슈미트가 정치의 독자성(autonomy)만을 강조한 반면에 스트라우스는 정치를 ‘다시 종교화’(re-theologize)함

16) Leo Strauss, *On Tyrann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23.

17) 안병진, “미국 신보수주의의 사상적 배경-레오 스트라우스를 중심으로,” 남궁곤 편, 『네오콘 프로젝트』, 113, 116.

으로써 정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¹⁸⁾ 스트라우스에게는 '결단' 그 자체만 있고 그 내용이나 방향성이 없는 슈미트의 사상이 위험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바로 유약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권위적인 통치를 했던 나치에 별고민 없이 협력했던 슈미트와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한 스트라우스가 갈라지는 지점이다. 스트라우스가 슈미트의 우적(友敵) 개념을 수용했던 것은 정치의 진지함을 회복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지나친 도덕성이나 종교성의 부여는 친구와 적 사이에 극심한 증오와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겠지만, 스트라우스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현실에서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자유'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의 본질을 흐리는 '가치상대주의'였다.

스트라우스를 자유주의의 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또 다른 근거는 그가 미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트라우스가 비판하고자 한 것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기보다는 가치 중립성에 매몰되어 있는 당시의 자유주의적인 학풍, 특히 역사주의(Historicism)였다. 스트라우스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철학 그 자체였다. 그는 철학자의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이라는 일종의 '철학 엘리트주의자'였다. 그는 자유로운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다. 스트라우스에게 나치의 박해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해 준 곳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이었다. 그는 현대의 자유주의를 무조건 비판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자유로운 토론과 연구를 통한 정신의 해방에 자유주의의 본질이 있는데, 바로 현대 자유주의 안에 고대자유주의를 위한 공간이 존재한다고 믿었다.¹⁹⁾

3. 비민주국가는 타도해야 할 대상인가?

현재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9/11 이전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엄격한 도덕주의 입장에서 모든 국가들을 선과 악의 두 부류로 나누고 이 기준에 따라 북한, 이라크 같은 독재국가는 타도해야 한다는, 소위 '체제 전환'(regime transfor-

18) Shadia Drury, *Leo Strauss and the American Right*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7), 92-3.

19) Pangle and Tarcov, "Epilogue," 929.

mation)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신보수주의의 대부인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이 절대적 도덕관에 입각한 지나친 개입주의에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반해 울포위츠(Paul Wolfowitz), 펄(Richard Perle), 리비(Lewis Libby)와 같은 2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은 ‘불량국가’(rogue state)의 개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²⁰⁾ 그렇다면 신보수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체제전환’이란 무엇인가?

신보수주의자들 및 스트라우스주의자들이 즐겨쓰는 ‘체제’(regime)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Politics*)에서 따온 말이다. ‘regime’은 그리스어 ‘폴리테이아’(politeia)의 번역어로서, ‘주권과 관련된 공직의 배분에 있어서의 폴리스의 구성원리’를 의미한다.²¹⁾ 보통 ‘politeia’를 ‘constitution’으로 번역하는데 스트라우스주의자들은 굳이 ‘regim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²²⁾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폴리스가 추구하는 목적과 권위가 행사되는 방식을 기준으로 체제를 분류할 수 있는데, 폴리스의 목적이 좋은 삶(a good life)이나 그렇지 않으나, 권위(authority)가 공동의 이익(the common interest)을 위해 행사되느냐 사익(the private interest)을 위해 행사되느냐에 따라 좋은(right) 체제와 나쁜(wrong) 체제가 나뉜다. 따라서 신보수주의자들이나 스트라우스주의자들이 체제 전환을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은 한 국가를 나쁜 체제에서 좋은 체제로 바꾸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지도자를 바꾸는 ‘정권교체’(regime change)가 아닌 국가 전체의 정치, 사회, 문화적 성격을 완전히 변형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선악의 이분법에 따른 신보수주의자들의 체제전환 주장이 스트라우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²³⁾ ‘체제’(regime)라는 표현이 스트라우스 및 스트라우스주의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스트라우스 자신의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스트라우스의 『도시와 인간』(*The City and Man*)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 안병진, “미국 신보수주의의 사상적 배경,” 114.

21) Aristotle, *Politics*, Book III, Ch. VI, 1

22) 스트라우스주의자들은 ‘regime’이라는 표현이 보다 가치중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23) 안병진, “미국 신보수주의의 사상적 배경,” 114; 박성래, 『부활하는 네오콘의 대부 레오 스트라우스』 (서울: 김영사, 2005).

서구 민주주의를 위해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려면, 국가들의 사회(the society of nations) 뿐 아니라 각 국가 자체까지, 전 지구를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²⁴⁾

서구(the West)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억제책은 폭군의 서구의 거대한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이다.²⁵⁾

얼핏 보기에는 스트라우스가 전 지구를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민주 국가들을 폭력을 써서라도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스트라우스의 사상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오는 오해다.

정치철학에서 중요한 논의점 중의 하나가 철학과 사회(정치)의 관계이다. 스트라우스와 좌파 헤겔주의자(Hegelian)인 코제프(Alexandre Kojève)는 바로 이러한 철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논쟁을 벌였다. 스트라우스와 코제프 두 사람은 철학과 사회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그 둘 사이의 갈등 해결의 가능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하였다. 코제프는 철학과 사회 양자를 타협시킴으로써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것이 '보편적이고 동질적인 국가'(a universal and homogeneous state) 안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스트라우스는 양자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철학과 사회 사이의 갈등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스트라우스가 보기에는 철학이 어떤 정치 체제의 개선에 기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사회와의 거리두기는 철학 자신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플라톤의 주장과 같이 철학의 본질은 사회가 기초하고 있는 공유된 신념과 믿음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에 있는 데, 만약 철학이 사회와 타협해서 진리에 대한 탐구를 그치게 된다면 철학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목적이 고귀하다고 해도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의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스트라우스는 서구(the West)도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목적, 즉 자유롭고

24) Strauss, *The City and Man*, 4.

25) *Ibid.*, 5.

평등한 인간으로 구성된 보편적이고 번영된 사회를 건설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다만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보았다. 공산주의는 모든 인류를 위한 공동선(the common good)의 달성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도 합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서구의 프로젝트는 그 수단의 선택은 도덕성(morality)의 문제이며 이것은 곧 공산주의와의 질적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했다.²⁶⁾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어느 정도의 갈등과 악은 불가피한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거의 실현 불가능한 목적을 위해서 무차별적인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공산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거기에는 반드시 엄청난 폭력이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스트라우스가 가능하지도 않은 전 세계의 민주화를, 그것도 폭력을 불사하고서라도 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트라우스가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정치단위는 개별국가이다.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도 그것이 미국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III. 신보수주의 외교 정책의 역사와 사상적 기원

1. 신보수주의 발전의 역사

신보수주의자들은 이념(ideas)의 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외교정책의 성패도 국내의 도덕논쟁의 승리에 좌우된다고 믿고 꾸준히 학계와 연구소, 언론 등에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노력했다. 현재 신보수주의자들의 득세에는 9/11이라는 계기도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그들의 꾸준한 세력 확장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고 보는 것이 진실과 더 가까울 것이다. 그렇다면 신보수주의자들의 이념과 철학은 어떤 기반위에서 형성되어서 발전해 왔는가?

보통 신보수주의자들을 1세대와 2세대로 구분하는 데 1세대에 속하는 인물로는 어빙 크리스틀, 노먼 포도레츠(Norman Podhoretz), 진 커크패트릭(Jeane Kirkpatrick), 대니얼 모이니한(Daniel Moynihan) 등이 있고, 2세대에는 울포위츠, 윌

26) Strauss, *The City and Man*, 5.

리엄 크리스틀, 루이스 리버, 게리 슈미트, 에이브럼 셸스키, 레온 카스, 로버트 케이진 등이 있다. 그런데 양 세대간에는 분명한 이념적 차이점이 존재한다.

1930, 40년대 사회주의를 포용하는 진보적 이념에서 출발해서 스트라우스, 니버, 아렌트, 트로츠키주의 등 다양한 지적 전통 속에서 자신들의 사상을 형성시킨 1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국내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일관된 철학적, 사상적 기반을 확립하려고 노력했으며 미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개입여부를 판단하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²⁷⁾ 그러나 원래 공화당의 전통 속에서 성장하여 자신을 신보수라기보다는 공화당 보수 본류로 여기는 2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에 일관된 철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고 매우 권력 지향적이며 진보진영에 지극히 비타협적이다.²⁸⁾

신보수주의의 원류는 1930년대 뉴욕에서 유대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필가 집단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경제공황을 계기로 뉴딜 자유주의에 경도되었으며 소련에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스탈린 체제의 전체주의적 속성과 이를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미국내 진보주의자들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되면서 반공주의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전통적 보수주의와는 달리 뉴딜식 복지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다.²⁹⁾ 그런데 1960년대 들어서 복지 정책이 문제점을 드러내고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학생운동이 격화된 것에 우려를 가지게 되었고, 70년대에는 카터의 낙관주의적 외교정책이 소련의 위협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이들 자유주의적 반공주의자들은 민주당과 자유주의로부터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1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이 본격적으로 세를 얻게 된 계기는 레이건 정부의 등장이었다. 그러나 이는 신보수주의자들에게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였다. 레이건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신보수주의자들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기게 되었고 강한 반공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27) 백창재, “미국 신보수주의 분석,” 『국가전략』, 2003년 제9권 3호, 90.

28) 백창재, “미국 신보수주의의 외교와 한반도,” 365-9.

29) 손병권, “미국 신보수주의의 역사적 배경-1930년대에서 레이건 행정부 시기까지,” 남궁곤 편, 『네오콘 프로젝트』, 65.

1985년 이후부터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대소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신보수주의 내부에 분열이 생겼다. 소련에 대한 더욱 강한 압박을 주장하는 포도레츠 같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어빙 크리스틀 같은 현실주의적 신보수주의자들이 힘을 얻게 되었다. 1989년 이후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는 반공주의를 매개로 하나로 묶었던 신보수주의의 해체와 이들이 전통적 보수주의와 결합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서 어빙 크리스틀은 *National Interest*를 창간하여 대외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높이려고 시도했고, 윌리엄 크리스틀이 *Weekly Standard*를 창간한 이후부터는 2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1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이 주로 문필가로 활동한 것에 비해 2세대는 국방부나 국무부 내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여 외교정책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일관되게 미국의 강한 힘에 기반한 일방주의 정책을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1세대와는 달리 철학적 기초가 약한 대신 후원금 확보와 대중매체 활용 능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담론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때 PNAC 활동에 참여한 신보수주의 그룹이 부시 외교안보팀에 대거 발탁이 되었으며 9/11을 계기로 이들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 되었다.

2. 신보수주의의 사상적 기원

신보수주의자들은 다양한 사상의 세례를 받으며 발전해왔다.³⁰⁾ 신보수주의자들은 본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로 시작했지만 인간본성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의 기본전제를 유지해왔다. 즉 신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성과 능력에 대한 낙관주의를 경계한다. 인간본성에 대한 이러한 전제는 니버(Reinhold Niebuhr)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니버는 『빛과 어둠의 자식들』(*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에서 빛의 자식들은 타인의 선한 면만을 보려는 경향을 극복하고 적의

30) 대표적인 신보수주의자인 어빙 크리스틀은 자서전에서 자신의 지적 편력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한 때 네오 마르크스주의자이자, 네오 트로츠키주의자, 네오 사회주의자, 신자유주의자였으며, 마침내 신보수주의자가 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여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인간의 개혁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가 따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니버의 사상은 신보수주의자들의 공산주의와 급진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잘 반영되어 있다.

1세대 신보수주의의 대표 인사 중의 한 명인 커크패트릭은 미국이 우파독재와 연대해서 좌파독재와 투쟁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 작업을 시도했다. 그녀가 이를 위해 끌어들이는 사상가가 바로 한나 아렌트였다.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에서 전체주의(totalitarianism)와 전통적인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체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후자는 체제 변화가 가능하지만 전자는 희망이 없다고 진단했었다. 커크패트릭은 아렌트의 이론을 보다 큰 적을 타도하기 위해서 당장은 보다 덜 위험한 적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아렌트는 스탈린 치하의 소련 정치체제만을 전체주의에 포함시킨 데 반해 커크패트릭은 모든 좌파 독재를 전체주의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산주의에 대한 적의를 드러냈다.³¹⁾

신보수주의자들의 적극적 개입주의 주장에는 월슨주의의 영향이 보인다. 이는 2세대 신보수주의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1세대는 국익에 바탕을 둔 권력 정치적 현실주의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에 중점을 둔 반면에 신세대 보수파들은 민주주의의 확산을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는 원래 월슨주의의 핵심 요소인 다자주의나 국제제도주의가 빠져있다.³²⁾

신보수주의자들, 특히 2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문화와 체제(regime)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타지역에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투철하다. 이는 비서구나 비민주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미국화, 민주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그런데 이러한 신보수주의자들의 이념적 특징은 앞에서 밝힌 것처럼 스트라우스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서구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서구 우월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 미국의 패권적

31) 이삼성, “미국 신보수주의 외교이념과 민주주의,” 『국가전략』, 2005년 제11권 2호, 89.

32) 같은 논문, 92.

지위에 기반한 공세적 현실주의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IV. 결론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의 영향력 강화와 더불어 레오 스트라우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자나 일부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신보수주의자들의 사상과 이념이 스트라우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미국의 현대 역사 속에 면면히 존재해왔던 여러 가지 사상전통과 국제관계이론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보수주의자들의 득세는 미국이 국제사회에 미국의 의지를 강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패권국이라는 현실적인 기반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철학적 기반이 부족한 2세대 신보수주의자들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세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신보수주의는 스스로의 현실 적응과정에서 이념적 체계보다는 현실정치에 비중을 두면서 힘을 키워왔으나 이러한 변신이 오히려 신보수주의자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시 대통령이 퇴임한지 4년이 지났고 그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했던 신보수주의자들이 대부분 일선에서 퇴장한 지금 그들에 대한 분석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지적 전통과 외교 정책의 역사와 2000년 부시의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그의 동생 잭(Jebb)이 유력한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신보수주의자들의 재등장 또는 그와 유사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얼마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 ▶ 논문 접수일 : 2013년 4월 12일
- ▶ 논문 심사일 : 2013년 4월 29일
- ▶ 논문 게재일 : 2013년 5월 10일

초록

미국 신보수주의 외교정책의 사상적 기원과 레오 스트라우스

신 철 희

9/11 세계무역센터 테러이후 미국의 부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라크 전쟁,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 불량 국가들에 대한 선제공격 위협 등 여러 가지 공세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 그런데 국내외의 많은 언론들은 전통과는 거리가 먼 이러한 미국의 외교 정책의 뒤에는 신보수주의자들(neoconservatives), 일명 네오콘(neocon)이 있으며, 이들은 1930년대에 독일로부터 망명한 유대계 정치철학자인 레오 스트라우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주장은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에 대한 오해와 선정적인 보도태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오히려 네오콘의 외교정책은 스트라우스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서구 우월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기반한 공세적 현실주의가 결합되어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 주제어 : 네오콘, 레오 스트라우스, 부시, 윌리엄 크리스틀, 미국 외교정책

Abstract

The Philosophical Origins of the US Neoconservatives' Foreign Policy

Shin, Chul Hee

After 9/11 attacks, the Bush administration pursued aggressive foreign policy, for example, the invasions of Afghanistan, the Iraqi war, and the threats toward rogue states. But concerning this new foreign policy of America, many media, both domestic and foreign, maintained that neoconservatives, so called, neocon were at the control tower and their philosophy was affected by a Jewish political philosopher, Leo Strauss who was a refugee from Germany.

However, the maintenance of the media resulted from a mis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philosophy of Strauss and their sensational attitude. On the contrary, the neocon's foreign policy was a mixture of Western supremacy, Christian fundamentalism, and aggressive realism based on America's hegemony, rather than the influence of Strauss.

□ Key words : Neocon, Leo Strauss, Bush, William Kristol, American Foreign Policy

참고문헌

- 남궁곤 편. 2005. 『네오콘 프로젝트』. 서울: 사회평론.
- 박성래. 2005. 『부활하는 네오콘의 대부 레오 스트라우스』. 서울: 김영사.
- 박성우. 2012. “이라크 전쟁의 레오 스트라우스 책임론에 대한 정치철학적 비판.” 『국제지역연구』 21권 1호. 155-188.
- 백창재. 2003. “미국 신보수주의 분석.” 『국가전략』. 제9권 3호
- _____. 2005. “미국 신보수주의 외교와 한반도.” 남궁곤 편. 『네오콘 프로젝트』. 서울: 사회평론.
- 이삼성. 2005. “미국 신보수주의 외교이념과 민주주의.” 『국가전략』. 제11권 2호.
- Aristotle. 1958. *Politics*, trans. Ernest Barke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Drury, Shadia. 1988. *The Political Ideas of Leo Strauss*. New York. Martin's Press.
- _____. 1997. *Leo Strauss and the American Right*. New York: St. Martin's Press.
- Kristol, Irving. 1995. *Neoconservatism: The Autobiography of an Idea*. New York: The Free Press.
- Lenzner, Steven & William Kristol. 2003. “What was Leo Strauss up to?” *The Public Interest* (Fall).
- Norton, Anne. 2004. *Leo Strauss and the Politics of American Empire*.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Pangle, Thomas & Nathan Tarcov. 1987. “Epilogue.” Leo Strauss & Joseph Cropsey eds.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3r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rauss, Leo. 1953. *Natural Right and Hist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58. *Thoughts on Machiavelli*.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78. *The City and Ma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8. *What Is Political Philosoph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2000. *On Tyrann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